

봄철 맥류 병해충 방제를

붉은곰팡이병, 보리·밀에 디페노코나졸 등 뿌리면 예방 흰가루병, 귀리에 디메토모르프 입상수화제 등 처리해야 감부기병, 보리 이삭 쫄 때 헥사코나졸 유제 등 뿌려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맥류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이삭쫄 때 이후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 등 맥류 병해충을 제때 방제해 줄 것을 5일 당부했다.

붉은곰팡이병에 감염되면 낱알 색이 퇴색해 일찍 갈색으로 변하며 알이 차지 않는다. 4월 중하순~5월, 맥류 이삭이 나오는 시기부터 여름기 전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계속되면 많이 발생한다.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보리, 밀에 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등을 뿌려 붉은곰팡이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귀리에는 헥사코나졸 입상수화제 등 등록 약제를 뿌린다. 재배지가 습하면 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물길을 잘 정비하고 물빠짐이 나쁜 토질은 물빠짐 길을 30cm 이상 파 준다. 맥류는 맑고

제를 뿌려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감부기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고 윤탕침지법으로 종자를 처리한다. 보리 종자에 카복신·티람 분제를 묻혀 사용(분의처리)하면 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위축병(BYDV)은 진딧물이 옮기는 바이러스병이다. 감염 초기 잎이 노랗게 변하고, 이후 잎 끝에서부터 아래 쪽으로 붉은색 또는 보라색으로 변하며 키가 자라지 않는다. 위축병에 대한 치료제는 없으나, 병을 옮기는 진딧물을 방제해 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보리에는 플로나카미드 액상수화제, 귀리에는 락타사이알로르틴 유제 등을 뿌린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살충제를 비롯해 잡종등록 작물보호제와 관련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 안전정보시스템(ph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가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는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부안군에서 밀, 보리 농사를 짓는 농업인 이재학 씨는 "맥류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해 고품질 밀 생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건조한 날에 수확해 바로 말린 뒤 손상, 미성숙, 병든 낱알을 제거해 깨끗하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저장한다.

흰가루병에 걸리면 잎에 밀가루처럼 하얀 가루가 반점을 이루고 심할 때는 줄기, 이삭까지 흰 가루로 뒤덮인다. 주로 5월에 비가 자주 내리고 흐리며 기온이 약 15도로 낮을 때 발생한다. 보리, 밀에는 마이클로부타닐 수화제 등, 귀리에는 아족시스트로빈·디메토모르프 입상수화제 등을 처리해 방제해야 한다.

이삭에 검은 곰팡이가 파는 감부기병은 감부기 포자가 바람에 날려 근처 식물체 꽃을 통해 침입해 종자를 감염시켜 발생한다. 현재는 보리에 대한 방제 약제만 등록돼 있다. 감부기 포자는 보리 이삭이 쫄 때 날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헥사코나졸 유제, 페녹사닐·티플루자미드 유제 등 적용 약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기원

휴비스, '지혜의 반찬' 후원

지역을 대표하는 섬유기업인 휴비스(전주공장장 고성욱)가 전주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후원하고 나섰다.

휴비스는 5일 소외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희망도시를 지원하는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휴비스의 선행은 올해로 7년째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 유아와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희망도시를 구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구입된 희망도시서는 올 여름 방학에 지원된다.

이에 앞서 휴비스는 지난 2015년부터 전주시의 '엄마의 밥상'과 '지혜의 반찬' 사업에 각각 1,000만원씩 기탁해 총 후원액이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휴비스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세트를 기부단체에 꾸준히 전달해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성장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부안군에서 밀, 보리 농사를 짓는 농업인 이재학 씨는 "맥류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해 고품질 밀 생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휴비스는 5일 소외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희망도시를 지원하는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워주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준 휴비스에 감사드립니다"며 "전주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발작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고추·밤·대추·감귤 19일, 고구마·옥수수 26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김현미)은 2021년 발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인삼은 5일, 고추·밤·대추·감귤은 19일, 고구마·옥수수 품목은 26일부터 판매된다.

지난해 불철 이상저온 및 장마, 태풍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가 피해가 극심해 도내에서는 79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상청의 올봄 기온변화 전망에 따라 개화기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삼 품목의 경우 작년부터 연중 2차례 판매하는 등 보장 수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도 4월, 11월 2차례 판매된다. 인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냉해, 폭염, 집중호우, 침수, 우박 등과 같은 재해와 화재로 인한 인삼(2년근 이상) 재배 피해를 보장해준다. 또한, 해가림시설의 경우 자연재해와 화재, 조수해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전라북도에 15%, 지방자치단체에서 15~3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부 시군에서 농가 부담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5~10% 상향해 지원하는 등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5~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신청 기간별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김현미 총국장은 "지자체의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지원이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밑받침이 돼 매년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농가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디지털 청구서 전환 이벤트 시행

전북은행, 6월 30일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개인 신용카드 명세서를 우편수령에서 디지털청구서(E-mail, LMS, 알림톡) 수령으로 변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청구서 전환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개인카드 이용대금 청구서를 자택 또는 직장으로 우편 수령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구서 수령 방법을 E-mail 또는 Mobile(LMS 또는 알림톡)로 변경 시 5000원 선택형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 쿠폰은 디지털청구서로 변경한 다음 달 말일 발송되며 스타벅스, GS칼텍스, 롯데마트,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CU, 이마트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북농협은 4월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북익산농협 장복식 조합장이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의 '함께하는 조합장상' 수상 주인공

북익산농협 장복식 조합장 농협 판매사업 신장 최선 교육지원사업에도 헌신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4월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북익산농협 장복식 조합장이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하는 조합장상'은 농협이 농협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1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계통구매, 도농상생 및 창의적 사업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월 2~3명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북익산농협은 2015년도 장복식 조합장 취임 이후 상호금융예수금 103.6%, 상호금융대출금 252.1%의 신용사업 성장을 바탕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농협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부녀회를 대신해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리더스클럽'을 조직했다. 여성조직을 통해 농업인행복센터, 행복나눔이, 영농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협사업에 큰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인 고령조합원, 홀몸어르신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으로 성장하고 있다.

장복식 조합장은 "앞으로 더욱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실익사업을 발굴해 조합원과 고객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지역 내 '청년조합원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건협, 유방암 루닛 AI 판독시스템 도입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는 유방촬영에서의 판독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9일 인공지능(AI)판독시스템 루닛 인사이트 MMG를 전국 16개 지부 건강증진위원회에 도입했다.

이 판독보조시스템은 유방암 의심 부위를 검출하여 위치 정보와 의심 정도를 표기해 영상의학전문위원의 진단을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유방 조직의 밀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판독 오류를 AI로 최소화해 정확한 판독과 진단에 활용하게 된다.

건협 전북지부 노기서영상의학전문위원의 "여성암발생 1위인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선조직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치밀유방의 경우 유방암 병소가 조기에 가려져 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인공지능(AI)판독보조시스템 도입으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현장 청렴·안전 이행 결의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5일 새만금 남북도로(3공구) 건설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청렴·재해예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남북도로 공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투명한 근무환경 정착과 건설현장 재해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청렴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군산지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이 국제사업답게 어떤 사업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최근 식품진흥원에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와 식품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산업 인재양성 '맞손'

식품진흥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교와 협약 체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최근 식품진흥원에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와 식품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중심의 산학협력추진 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식품진흥원 김기주 본부장장과 신동호 기술처장, 마이스터고 김귀복 교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마이스터고 김귀복 교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품공학 전공 교과 및 바이오식품과 재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식품진흥원과 협심하여 식품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식품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식품진흥원과 마이스터고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전북 도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채수복 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는 "마이스터고와 식품진흥원 간의 협력은 취업기반이 부족한 전라북도에서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전북도교육청은 향후 도내 산업체,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진흥원 김기주 사업본부장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와 적극 협력하여 우수한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중기중앙회, 2021년도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 힐링캠프·유튜브 제작 등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미래지킴이(역량강화) 과정'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도 노란우산 고객지원 교육'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소상공인 경영의욕 고취와 재충전을 위한 힐링캠프 ▲정수 상인의 성공비결 및 상인정신 함양 지원을 위한 상도 트립 ▲자녀대상 조기 경제·금융교육을 통한 경제리더 육성을 지원하는 자녀 경제캠프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킴이 과정(역량강화 지원) ▲온택트 시대 홍보전략 다변화를 위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튜브 제작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5개 과정 전체 교육인원은 6,200명, 교육 횟수는 총 84회로 경기도 용인 소재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및 지역별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육인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교육일정은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원하는 날짜에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

박용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로 지친 소상공인에게 재충전 기회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교육으로 진행한다"며 "고객전문자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